

마르코 복음서 14장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마태 26,1-5; 루카 22,1-2; 요한 11,45-53)

- 1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 2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1) 파스카와 무교절은 본디 기원이 서로 다른 축제였지만, 실제로는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신명 16,1-8 참조). 예루살렘 관습에 따르면, 첫째 달(히브리말로로는 니산 달로, 대충 4월에 해당한다.) 열나흘날 오후에 성전에서 어린양을 잡는다. 이날은 춘분 직후의 만월 전날이다. 잡은 양은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족별로, 또는 열에서 스무 명까지 무리를 지어 먹었다(탈출 12, 1-14 참조). 이날 저녁부터(해가 지는 것으로 새날이 시작되었다) 집에서 누룩이 치워지고, 이레 동안 누룩 든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탈출 12,15-20). 옛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에 대한 희망 속에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회상하고 재현하였다. 이것이 한 해의 가장 큰 축제였다.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 때처럼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자가 모여들었다.¹⁾

2) 마태오 복음서 26,1-5 해설 참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마태 26,6-13; 요한 12,1-8)

- 3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 4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 5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 6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 7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

1)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08쪽, 각주 1.

를 바른 것이다.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 이 여인은 아마도 단순히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는 이 향유를 부음이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얻는다고 강조한다.²⁾

2) 마태오 복음서 26,6-13 해설 참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마태 26,14-16; 루카 22,3-6)

10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11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마태오 복음서 26,14-16 해설 참조.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마태 26,17-19; 루카 22,7-13)

12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 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 에다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1) 이 식사는 순례자들의 식사로서, 이집트 탈출과 모세를 통한 시나이 계약이라는 과거를 재현하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미래를 실현하는 축제의 이중적 의미 속에 거행되었다. 아무튼 마르코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곧 파스카 식사였음을 암시한다.

2) 마태오 복음서 26,17-19 해설 참조.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08쪽, 각주 9.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마태 26,20-25; 루카 22,21-23; 요한 13,21-30)

- 17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19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26,20-25 해설 참조.

성찬례를 제정하시다(마태 26,26-30; 루카 22,14-20; 1코린 11,23-25)

-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마태오 복음서 26,26-30 해설 참조.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마태 26,31-35; 루카 22,31-34; 요한 13,36-38)

- 2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1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1)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으로 등장하신 곳은 갈릴래아이다.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실 곳도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다.³⁾

2) “닭이 두 번 울기 전”은 곧 날이 새기 전에, 닭이 한 번 울고 다른 닭이 그것에 응하여 또 우는 것이다. 그리고 파수가 교체되는 밤 삼경 끝에 부는 나팔 소리이다. 단순히 ‘날이 새기 전’을 뜻하기도 한다.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마태 26,36-46; 루카 22,39-46)

32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34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36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37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38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마태오 복음서 26,36-46 해설 참조.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0쪽, 각주 30 참조.

4)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1쪽, 각주 31 참조.

잡히시다(마태 26,47-56; 루카 22,47-53; 요한 18,1-11)

- 43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 44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 45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 46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 47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 48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된 것이다.”
-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마태오 복음서 26,47-56 해설 참조.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

- 51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 52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 무명의 인물은 스승님을 따르려고 시도하는 성실한 제자의 표상일 수 있다.⁵⁾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마태 26,57-66; 루카 22,54,66-71; 요한 18,12-14,19-24)

- 53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 55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 56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5)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2쪽, 각주 48 참조.

- 57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 58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 60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 하고 물었다.
- 61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 62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63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 64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마태오 복음서 26,57-66 해설 참조.

예수님을 조롱하다(마태 26,67-68; 루카 22,63-65)

- 65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 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마태오 복음서 26,63-65 해설 참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마태 26,69-75; 루카 22,55-62; 요한 18,15-18.25-27)

- 66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67 불을 쬔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 68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 69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 70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71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 1) 베드로의 부인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이다. 이는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시라는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저버렸다. 사람의 부끄러운 연약함이었다. 3년간의 예수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 2) 마태오 복음서 26,69-75 해설 참조.